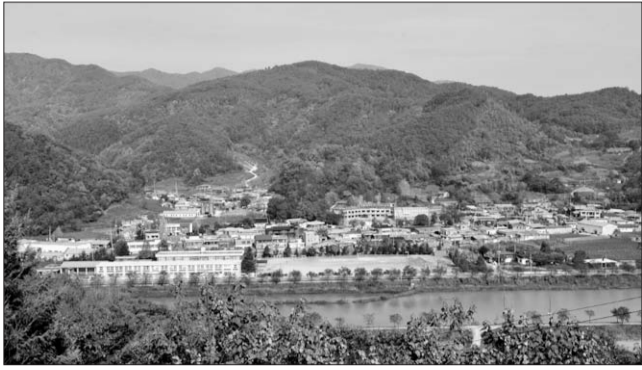


순창군, 농산촌 가꾸기 선정

사업비 2억원 확보
쾌적한 환경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순창군은 선비의 길과 장승촌 테마공원 등 순창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들과 함께 걷기 좋은 길 조성으로 관광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이 전북도 공모사업인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농산촌 경관을 재현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특색있는 생태 관광자원 및 휴양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도내 5곳의 마을을 선정한다. 군은 지난 7월 6일 사업계획을 신청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월 31일 최종 선정, 국비등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2019년부터 시행될 이번 사업은 삼치면 보평마을의 3개마을의 진입로 6km구간에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한다. 이번 가로수 조성은 삼치면 보평 금정 석현 쟁계마을 4개 마을 300여명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사업 신청단계부터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과 주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특색 있고 아름다운 휴양공간으로 거듭나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군 정성희 산림공원과장은 "내년 4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평마을부터 쟁계마을까지 쟁치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길이 조성될 것으로 예

상된다"면서 "주민부터 관광객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훈몽재 선비의 길과 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전봉준 피폐지관 등 순창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들과 함께 걷기 좋은 길 조성으로 관광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에서

N치즈축제 기념 10월 3일 공개녹화, 참가접수는 20일까지

임실군은 오는 10월 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국민MC 송해의 진행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임실군편의 공개녹화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노래자랑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2018임실N치즈축제'와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임실군이 야심차게 유치한 프로그램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작성 후 각 읍·면사무소 및 담당부서(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ddaphne@korea.kr) 또는 FAX(☎063-640-234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임실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메일, FAX 신청 시 담당부서(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063-640-2311)로 확인해야 한다.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은 20일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예심을 거친 뒤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대상으로 공개녹화를 진행한 다.

특히 이번 임실군편에는 김연자와 박상철, 서지오, 버드리, 민수현 등 유명 가수들의 초대 공연과 함께 임실치즈는 물론 다양한 지역 특산물도 소개될 예정이다.

심민군수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2018 임실N치즈축제를 전 국민의 축제로 알리고,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됐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천만송이 국화향기가 가득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많이들 찾아오셔서 전국노래자랑도 즐기시고, 임실치즈테마파크의 멋진 가을풍경을 만끽하시며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 설치

순창군은 최근 응급 조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책여산, 무량산, 섬진강 자전거길 등 주요 등산로와 자전거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확한 현 위치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총 55개소를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m단위로 격자형으로 그물망처럼 구획하고, 각 지점마다 한글 2자와 이리비이숫자 8자로 조합된 번호를 부여한 통일된 국가적 위치표시 체계다. 군 우만식 민원과장은 "이번에 통일된 위치표시체계인 국가지점번호 확대설치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군민들이 야외에서 안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점번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순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추석 종합상황실 운영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남원시는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보건소(전화 625~4000)에, 재난, 교통, 쓰레기, 도로복구, 의료방역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땐 종합상황실(전화 620~6956~8)로 신속히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성수품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생활품 등 32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민간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물가 특별지도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특별 교통대책반도 운영한다.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해 귀성객에게 청결한 고향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취약시기에 불법배출을 막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감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명절기간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청소민원 처리반과 특별상황반도 운영하고, 연휴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관하투원, 테마파크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중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전북도와 청도 교육그룹에
치즈테마파크 · 119체험관 등
관광지 · 명소 촬영 지원



임실군은 최근 전라북도와 함께 중국 청도지역 교육그룹에게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등 관광지와 명소 촬영을 지원했다.

임실군은 최근 전라북도와 함께 중국 청도지역 교육그룹에게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등 관광지와 명소 촬영을 지원했다.

이번 촬영은 중국의 청도방송국과 국제교육문화교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각종 문화교류 행사에 많은 여행상품을 제공, 전라북도에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심민군수는 "앞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전북119안전체험관 등을 연계

한 농촌체험관광 여행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할 것"이라며 "국내관광객 뿐 아니라 국외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500만 임실 관광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안전관리실무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단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기에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관계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골 배 등 농산물 판매 적극 나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이환중 소장과 간부들이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 등 농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며 농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춘향골 배는 지역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로 수분함량이 많고 비타민, 칼륨, 루테올린 등의 함유량이 많아 기관지 질환과, 숙취해소, 소화촉진과 감기예방 등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향골 배는 지난 1997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캐나다, 대만 수출 생산단지 지정받은 후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베트남, 대만, 뉴질랜드, 홍콩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이환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은 "춘향골 배가 예상치 못한 피해에도 해외수출은 물론 국내 판매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농민들의 그 노고에 감사한다며, 기술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이환중 소장과 간부들이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 등 농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며 농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